



오륙도 캠퍼스



이 광 국

남구청 구보담당 직원으로부터 '대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에 나는 10여년 전 남구와의 인연이 새삼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당시 남구의 최대 현안은 UN기념묘지의 활용이었다.

세계에서도 유일한 UN기념묘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UN기념묘지 활용에 대한 연구와 이에 기반한 국비 확보를 위하

여 기획예산처 방문도 몇 차례 하였으나,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그 당시 얻어낸 최고의 성과는 묘지를 공원으로 바꾼 것, 그리고 이후 영국 여왕의 UN기념공원 방문 소식으로 주변정비가 이루어진 것이 전부이다.

그 후 1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남구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대학로가 있는 것이다.

대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하여 구민과 대학생들의 관심은 매우 높다.

그러나 남구소재 3개 대학교(부경대, 경성대, 동명대) 대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결과 거리의 정비뿐만 아니라 인근

에 산재한 문화시설의 인지도 제고와 이들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대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의 목표는 교육·문화시설과의 연계성을 통한 부상을 대표하고 남구를 대표하는 명물거리로의 조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계획은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부경대학교 담장(661m)허물기와 경성대 일구에서 영남제분까지의 왕복구간(2km)에 대한 보도패턴의 정비와 전선지중화 등 특화거리로의 조성이다.

부경대 담장허물기 '청신호'

담장허물기와 보도패턴의 정비라는 두 가지만으로 부산과 남구

를 대표하는 명물거리가 될과 동시에 교육·문화시설을 한데 아우르는 특화거리가 될 것인가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들은 회의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 끝에 만족스럽지 못한 예산이지만 확보하여 부경대학교 담장허물기 사업부터 시작하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남구의 미래상 실현에 청신호인 것이다.

남구의 미래상인 '교육·문화도시'의 건설은 그저 다수의 교육시설과 문화시설이 산재한 것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지역주민과 대학생의 적극적인 인식과 이용이 바탕이 되어 대학과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UN기념공

원, 조만간 당국 공원에 건립될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을 어떻게 연계하여 하나의 교육·문화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교육과 문화시설 갖춰야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로의 연장이다. 대학로 조성은 경성대 일구~UN기념공원(평화공원)~동명대~부경대 용당캠퍼스까지 연장하여 각종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물리적 공간인 교육과 문화시설을 연결하는 축인 대학로가 단순히 보도패턴의 정비라는 물리적 환경

렇게 먹는 경향을 보이니 자라나는 아이들은 더욱 버리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과일을 먹을 때 먹을 수 있는 부분까지 다 먹는 습성을 기성세대들부터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우양화(문현3동)

애완견 관리를

얼마 전 평화공원을 찾았다. 오랜만에 찾은 땀인지 조금은 땀이 있었지만 그래도 푸른 숲과 나무를 바라보니 마음이 확 트이는 것 같았다. 그런데 길을 걷다 보니 개가 변을 보고 간 흔적을 발견하고 불쾌했다. 나뿐만 아니라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다.

참외의 경우도 너무 깊숙이 깎아 먹는 부분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른들마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개선에 초점이 맞춰지기 보다는 이들 시설들의 연계를 통하여 교육문화도시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

둘째, 대학교의 지역사회 참여이다. 대학로 문화의 거리 조성 즉 대학문화화를 담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학생과 대학,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방안을 제시하며,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명실상부한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가 있는 명물거리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6월 말 조선일보에 발표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이 뽑은 타 지역 축제와 우수 정책에 남구는 이름을 올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대학로 문화 거리 조성 이 지역주민, 학생, 대학의 공감대 위에 문화와 교육이 어우러진 젊고 생동감 넘치는 명물거리로 꾸며진다면 대학로에서 만들어 낼 축제와 우수정책들을 오히려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것으로 기대하여 본다.

동명대 건축학과 교수



<164>



적정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 대강대강 쉽게 넘어가는 대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 모든 일을 도맡아 걱정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미꾸라지 흠 파듯 지나치게 몰두하는 세심한 사람도 있다.

물론 다 장·단점이 있다. 대충 대강 넘어가다 중요한 일을 실수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일도 잘 풀리고 능률적일 때도 많다.

그런가 하면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다보면 실수는 적었지만 열기설기 꼬여 비능률적일 때도 있다.

어쨌든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열자(例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기(杞)나라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근심하느라 밤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가 근심하여 수척한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 말했다.

"하늘이란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 기체가 없는 곳이 없네. 그리고 모든 생물은 그 속에서 움직이고 숨 쉬면서 살고 있는데

그것이 무너질까 걱정을 하더니"

그러나 그 사람은 여전히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다.

"하늘이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면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질 것이 아니요?"

"해와 달과 별 역시 기체로 이루어진 것 중에서 광채가 있는 것이므로 떨어진다 하어도 우리가 다칠 염려는 없네"

"그래요? 그럼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하지요?"

"땅이란 끝없이 넓은 바위 위에 흙이 쌓여 이루어진 것으로 땅은 온 세상에 가득하여 없는 곳이 없네. 그런데 그 땅 위에서 걸여 다니고 뛰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꺼진다니 어디 될 말인가?"

그 말을 듣고서야 그 사람은 비로소 마음을 놓고 얼굴에 웃음을 띄었다.

요즘 사람치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누가 하겠나만, 무슨 일이든 일렁일렁 무책임하게 넘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세심하여 그 속에 빠져 헤쳐 나오지 못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변역문화가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황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과일껍질 줄이자

요즘 젊은층들은 과일을 먹을때 버리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다.

특히 여름철에 많이 먹는 수박의 경우 발절개 잘 익은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속 부분만 먹고는 껍질 쪽 부분은 그냥 버리는 경우가 흔하다.

과거 내가 어릴 때는 수박을 푸른

껍질 바로 안쪽까지 먹었는데 요즘 부모나 아이들은 발절개 익은 부분도 다 먹지 않고 버린다. 그리고 먹고 난 수박껍질은 된장에 넣어 요리하거나 박나물로 먹기도 했는데 이제는 수박을 제대로 다 먹지도 않고 버려 너무 낭비가 아닌가 싶다.

참외의 경우도 너무 깊숙이 깎아 먹는 부분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른들마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대연역 근처와 대연골프장 옆길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신 대연1동 객운석씨의 의견에 답변 드립니다.

제보자께서 지적하신 대연4동 대연 골프연습장 옆길과 대연역 남산 앞무미는 앞 도로변에 대해서도 우리과(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에서는 수시로 순찰하여 교통질서 계도 및 불법주차행위가 근절이 되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보니 근본적인 불법 주차정지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

다. 하지만 유엔로 등 각 이런 도로상

의 교통 불편 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부족하지만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을 실시토록 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정찬운>

버스정류장 환경정화 노력

버스정류장 환경을 정화하자고 건외해 주민 감만2동 강민수씨의 의견에 답변 드립니다.

먼저 버스승객 대기시설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우리구에서는 버스승객 대기시설(33개소)을 이용하시는 주민을 위하여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도색 및

불 수 있게끔 설계해 있었다. 남구 지역 경성대 부근에 이와 비슷한 노래방이 생겼지만 수 노래방은 상상 이상의 공간이었다.

오후 4시, 일행은 오늘의 하이라이트 통기타 공연을 위해 흥대 앞으로 이동했다. 인디밴드 공연장으로 젊은이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온드 홀라'에 들어선 일행들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어둡고 침침한 조명과 낮은 음악이 생경하게만 느껴졌다. 무엇보다 좌석이 없는 공간은 마치 먼 이국땅에 온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런 낯설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리하설을 하는 동안 일행은 그동안 익힌 기타 실력을 가다듬으면서 분위기를 사로잡기 시작했다.

저녁 6시 마침내 공연이 시작됐다. 먼저 나를 포함한 한기현 실버통기타양상을 감사, 박영태 남구문화원 노래교실 강사로 구성된 3인조 밴드의 공연이 선을 보였다. 자판풍의 '내애엔 난 나애엔 너' 등의 노래가 연주되자 장내는 후끈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이어서 남구문화원 실버통기타양상을 어른신들이 무대에 올랐다.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한기현 강사의 수신히를 시작으로 기타를 통기타 시작했다.

에델바이스, 얼굴 등 왈츠풍의 정돈된 기타음이 울리면서 관객과 하나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뒤를 이어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와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등이 연주되자 100여명의 관객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20대 젊은 대학생들과 하나 되는

강동의 무대였다.

김민지(20·인천대)씨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젊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통기타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습이 놀랐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기성세대와 같이 호흡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주를 마치고 내려오는 어른신들의 얼굴에는 벅찬 강동과 자부심의 빛이 넘쳐났다. 무대에 서기까지의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듯 보였다. 4개월 전 환갑이 넘은 나이에 기타를 배우겠다고 처음 문화원을 찾았을 때의 낯설었던 자신의 모습과 그동안 집과 문화원을 오가며 기타 연습에 매진하며 땀 흘렸던 고생이 순간 오바랩 되면서 눈물이 고였다.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어른신들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성재영 원장과 한기현 강사(에일실용음악학원장)의 헌신적인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입을 모았다.

간단히 저녁을 먹고 부산항 버스에서 다시 몸을 실은 일행들은 몸을 비록 파김치가 됐지만 젊음의 공간에서 자신들의 실력을 맘껏 발산했다는 성취감으로 흠뻑 취해있었다.



이 문 연

남구문화원 사무국장

■ 살며 생각하며

한가위 풍경



우 정 연

고1 시절이었던 1969년 추석 때 고향 가는 길은 바람과 폭우로 무려 반나절이나 걸렸다.

당시 부산에서 자취생활을 하던 내게 명절은 엄청나게 기다려졌다. 고향에 가면 부모님과 친척들을 만나 뵈 수 있고 풍성하고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자취생활을 하면서 밥을 굶거나 대중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엄청난 비와 바람 때문에 부산을 떠난 시외버스는 속력을 내지 못했고 남지(경남 창원군 소재)에 와서는 도로가 침수되어 배를 타고 송진까지 가서 다시 버스를 타야 했다. 당시는 요즘처럼 명수 있는 통기타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습이 놀랐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기성세대와 같이 호흡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주를 마치고 내려오는 어른신들의 얼굴에는 벅찬 강동과 자부심의 빛이 넘쳐났다. 무대에 서기까지의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듯 보였다. 4개월 전 환갑이 넘은 나이에 기타를 배우겠다고 처음 문화원을 찾았을 때의 낯설었던 자신의 모습과 그동안 집과 문화원을 오가며 기타 연습에 매진하며 땀 흘렸던 고생이 순간 오바랩 되면서 눈물이 고였다.

간단히 저녁을 먹고 부산항 버스에서 다시 몸을 실은 일행들은 몸을 비록 파김치가 됐지만 젊음의 공간에서 자신들의 실력을 맘껏 발산했다는 성취감으로 흠뻑 취해있었다.

고프냐며 금세 음식을 차려 주었다. 그 날 점심 이후 무려 10시간을 아무 것도 먹지 않아 정말 너무나 배가 고파던 것이다.

사실 배를 타고 강위를 가로지를 때 혹시 배가 뒤집히지 않을까 겁도 많이 났고 환한 달빛 속에 그래도 이런 고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좋다고 생각했다. 팔월 대보름 달빛 속에 뚫은 지치고 피곤하진단 식구 모두 송편을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

그리고 나물도 다듬고 부모형제간에 이런 저런 이야기로 꽃을 피우다가 밤 1시가 되어서 잠자리에 들었다.

모든 가족들이 다 모이니 방이 비좁아 새우잠을 자지만 마음은 편안하고 기쁘기 그지없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어젯밤에 빗은 송편과 햇과일, 기타 각종 제수음품을 차려 놓고 모두 조상께 차례를 지냈다. 올 한해도 풍년이 들고 우리 마을이 평안하고 우리 가족도 화목하고 편안하길 기원했다.

차례를 내지 후 차린 음식을 약간씩 뜯어 고수레한 뒤 식탁에 둘러 앉아 맛있게 먹었다.

추석음식과 반찬거리를 어머니께서 챙겨 주어 들고 만원인 시외버스에 몸을 싣고 부산으로 돌아올 때 눈물이 핑 돌았다.

부산에 가면 다시 고생길에 뵈 한테도 갈수 밖에 없는 처지가 안타까웠지만 도리가 없었다. 그래도 고향을 건너는 마음에 위안을 얻고 어서 빨리 도착하길 바랐다. 하지만 추석 이틀 전부터 강풍을 동반한 비가 쏟아져 버스는 속력이 느렸고 남지에서 나뭇배를 타고 밤중에 강을 건너 다시 버스를 타고 겨우 집에 도착하니 밤 10시가 되었다.

8월의 보름달이 두둥실 솟아올라 온 동네를 환하게 비추 주었다. 부모님께서는 자식이 왔다고 얼마나 좋았든가.

회사님·남천동

■부산남구문화원 실버통기타양상을 흥대 앞 '나이 없는 날' 행사 참가기

나이를 벗고 문화를 입다

부산남구문화원(원장 성재영) 실버통기타양상을 회원 13명은 지난 9일 서울 흥대 앞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나이 없는 날' 행사에 참여해 젊은이들과 호흡을 같이했다.

5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 그리 높지 않은 건물 하나하나에 예술의 혼이 살아 숨 쉬는 듯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다. 흥대역 4·5번 출구를 빠져 나온 일행들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중합안내소 옆에 위치한 '변신'의 장'.

최신 유행하는 화장과 헤어를 직접 해보고 패션 가발 등을 써보며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타임머신과도 같은 공간이다.

일행들은 일제히 버스를 기웃거리며 각종 체험을 하기 시작했다. 가장 인기 높은 부스는 패션 가발을 써보는 곳으로 먼저 도착한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우리 일행들도 여기에 질세라 형형색색의 가발을 써보며 기념촬영에 시간가는 줄 몰랐다.

일행 가운데 일부는 보라색, 분홍색 등 패션 가발을 쓴 채로 식사 장소로 이동. 가는 길에 만난 시민들의 반응이 재밌었다.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사람, 놀란 표정을 짓는 사람, 크게 웃는 커플 등등...



인디밴드 공연장서 연주하며 대학생들과 소통 이색카페·노래방 직접 체험 통해 젊음문화 만끽

인터넷을 통해 맛집으로 잘 알려진 '고삼이 생선구이집'에서 맛있게 점심을 먹고 본격적인 행사 참여에 나섰다.

'나이 없는 날' 행사는 대표적인 젊음의 거리 흥대 앞에서 펼쳐지는 거리 축제로 나이로 인한 '문화의 장벽'과 '공간의 장벽'을 허무는 문화 소통의 날이다.

먼저 찾은 곳은 이색카페 지베(ZIBE). 커튼으로 공간을 나눠 룸을

꾸며 놓은 카페로 고급스럽고 몽환적인 인테리어가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특히 1층 중앙에 설치된 수영장은 발을 담그고 시원하게 담소를 나눌 수 있게끔 설계되어 어른신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손색이 없었다. 언론들의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이어 찾은 러쉬는 수 노래방. 이곳은 사람이 막혀있는 기존의 노래방과는 달리 통유리창을 활용해 노래하는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꾸며 놓은 카페로 고급스럽고 몽환적인 인테리어가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특히 1층 중앙에 설치된 수영장은 발을 담그고 시원하게 담소를 나눌 수 있게끔 설계되어 어른신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손색이 없었다. 언론들의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이어 찾은 러쉬는 수 노래방. 이곳은 사람이 막혀있는 기존의 노래방과는 달리 통유리창을 활용해 노래하는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들이